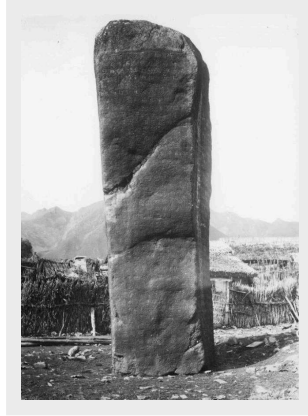


광개토왕의 정복 전쟁 고구려의 천하가 열린다



중국 길림 광개토왕릉비 정면
/ e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 /

1 개요

광개토왕(廣開土王)은 391년 고구려 19대 왕으로 즉위하여 412년 사망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박하며 경기도 북부를 비롯한 한강 이북지역을 장악하였으며, 북쪽으로는 거란과 숙신(읍루)을 정벌하였다. 또 동쪽으로는 동부여를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서쪽으로는 후연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요동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처럼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영역을 사방으로 확장하며 나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군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광개토왕의 위업은 414년 그 아들 장수왕(長壽王)에 의해 건립된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고구려,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다

4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거세게 요동쳤다. 중원을 통일한 진(晉) 제국이 쇠퇴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북방민족들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진 제국은 북방민족에 의해 낙양(311년)과 장안(316년)이 함락당하고 황제가 잡혀가 죽임을 당하며 멸망하기에 이른다. 317년 진 황실의 일족이었던 사마예(司馬睿)가 건강(建康, 지금의 난징)에서 동진(東晉)을 재건하였지만, 화북 지역은 다섯 계통의 북방종족이 건국한 여러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는 5호 16국의 대혼란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이 무렵 고구려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하고(313~314) 동북아시아 세력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왕은 왕 중의 왕 '태왕(太王)'으로 불리었으며, 고구려 세력권 내에는 말갈, 옥저, 동예 등 주변 세력뿐만 아니라 낙랑·대방 출신의 백성까지 흡수되어 있었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서방으로부터 고구려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북방민족의 발호 속에 요서 지역에는 선비족(鮮卑族)의 일파인 모용부(慕容部, 모용선비) 세력이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337년 모용선비는 전연(前燕)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순식간에 중국의 하북 일대와 요서 지역을 장악해나갔다. 고구려의 '숙명의 라이벌' 모용선비의 등장이다.

이처럼 서쪽에서 모용선비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때 고구려에서는 16대 왕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371)의 치세를 맞이하고 있었다. 고국원왕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던 불운한 군주였다. 특히 고국원왕 치세 전반기에는 강대한 모용선비(前燕)와 충돌하게 된다. 337년 전연을 세우고 연왕(燕王)을 자칭한 모용황(慕容